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영어	소속(학부/과)	컴퓨터공학과
파견 학기	2018학년 2학기		파견 국가	일본
파견 대학	수도대학동경(TMU)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교환학생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일본유학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일본어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복무기간 중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는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초 일본어와 대학교에서 일본어기초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기초를 아는 상태에서 JLPT N2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이어서 N1을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공부한 일본어를 어딘가 써먹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유학관련정보를 찾아보다가 학교 교환학생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 일본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일본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교환학생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4월부터 교환학생 서류를 작성합니다. 생각보다 교환학생 접수기간이 빨라서 조금 서둘렀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하고 나서는 출국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실수로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착각해서 1시간 후에 갔더니 끝나있어서 개별로 간결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도대학에서 요구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주는 양식을 채우는 형식이 많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 건강증명서는 프린트해서 병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 작성 받아야 했습니다. SATOMU 프로그램은 개인 선택이지만 저는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일반 일본인들과 같이 듣는 과목을 많이 듣고 싶어 신청하지 않았지만 공대생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대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비싸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하지 말고, 일본 현지에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JASSO 장학금을 신청하라는 메일도 날아오는데 꼭 해야 합니다. 파견학교 당 1명을 지급해 주는데 한 달에 지급 받았다는 사인만 하면 8만엔으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국제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발급은 부산에 대사관까지 직접 가야했습니다. 1학기가 끝날 즈음 국제원에서 입학 허가증을 줍니다. 입학허가증, 증명사진, 여권을 가지고 대사원에 가서 신청하면 다음날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받기 위해 부산에 하루 동안 묵거나 다시 오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사관 옆에 위치한 한일교류원에 비자수령 의뢰를 맡기면 됩니다. 자세한 비자발급 절차는 부산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항공권은 일찍 구입할수록 싸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올 날을 몰랐기 때문에 왕복으로 사지 않고 편도로 샀습니다. 기숙사 신청 입금계좌가 메일로 날아오면 은행에서 해외송금하면 됩니다. 송금수수료는 반드시 자기 부담입니다. 수강신청은 미리 하지 않고 현지에서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어도 솔직히 엄청 정보가 부족했고 교환학생이 들을 수 없는 수업도 있었습니다.(스포츠체육 등)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수도대학동경은 도쿄 중심가(신주쿠기준)에서 조금 서쪽에 위치한 미나미오사와에 있습니다. 기숙사와 캠퍼스가 떨어져있어서 전철타고 20분을 가야합니다. 왕복 교통비가 554엔으로 매일 학교에 간다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수도대 재학생은 전철 정기권을 끊을 수 있어서 괜찮지만 교환학생은 할 수 없어 시간표를 짤때 공강을 만들거나 수업을 몰아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캠퍼스는 적당히 크고 건물들도 유럽풍에 정말 대학교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는 엄청 예쁘고 세련된 아울렛 상점가가 있습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수도대 국제과에 물으면 친절하고 빠르게 답장이 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SATOMU 과정의 수업은 거의 영어로 진행되고 일본인 교수님의 경우는 일본어도 종종 사용하십니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한 저는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수업내용이 쉽기 때문에 출석만 잘 한다면 성적받기는 쉽습니다. SATOMU의 일본어 수업은 N5~N1+까지 수준별로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어 자기 수준에 맞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유럽, 서양친구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못하고, 중국,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친구들은 일본어를 대부분 잘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싶은 쪽의 수강도 선택 가능합니다. 일본인과 함께하는 일반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고 현지 일본인 대학생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과계열 전공수업의 경우 히노캠퍼스 라는 다른 캠퍼스에 개설됩니다. 히노캠퍼스는 미나미오사와캠퍼스에서 왕복셔틀버스를 타고 30분거리입니다. 정말 이과계열 전공수업이 듣고 싶다면 감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도쿄도 초후시 타마가와 6초메에 있는 글로벌하우스초후입니다. 3층 맨션의 사우스, 노스 건물이 있으며 3라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숙사 가격은 학기당 20만엔 + 보증금4만엔이었습니다. 전기, 물,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랜 케이블이 공사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 오직 무선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는 무선네트워크 수용량이 작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시간에는 와이파이가 엄청 끊기고 느려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이후로 새로 공사해서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는 맨션 한 집을 유닛이라 부르고 유닛 안에는 방이 세 개 있습니다. 세 방을 한 명씩 쓰며,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는 깔끔해서 쓰기 좋습니다. ReBITA라는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3일에 한 번 주기로 타올티슈, 화장지를 공급해주고 청소까지 해줍니다. 유닛 안에는 싱크대와 전기레인지도 있지만 유닛단위의 요리는 무슬림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는 라운지라는 공용 쉐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국적의 기숙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라운지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기숙사에서 10분 거리이고 가까운 중심가인 초후는 15분정도 거리입니다. 초후에는 음식점, 마트, 전철, 은행 등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6만엔정도 썼습니다. 저는 JASSO장학금을 받지 못해 제가 파견오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을 쓰며 생활했습니다. JASSO장학금을 받는다면 그 장학금만으로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려면 8만엔~10만엔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대학 쪽의 국제과 프로그램은 재밌어 보이면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웰컴 파티, 교자파티 단기 프로그램 학생의 웰컴파티 등 파티가 주류이고 후지산여행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후지산여행은 가격이 1만엔인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전부 고려하면 아주 싼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제과 서비스는 좋습니다. 방문하거나 메일로 모르는 항을 질문하면 항상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교환학생 활동은 거의 파티가 많습니다. 파티에 참석하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로 교환학생프로그램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프린트는 1호관의 320,330 등 정보실에서 무료로 하루에 20장씩 할 수 있고, 식당 옆에는 유료로 프린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학교엔 여러 시설이 있지만 저는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아리를 들지 않았지만 유도부나 산악부 같은 동아리는 유학생도 많고,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것 같아 추천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저는 교환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과의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파견 왔지만 대부분 혼자서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다음 파견학생들도 꼭라운지에 가서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파티에 참석하며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인들이 많아서 다들 파티를 자주하고 모임을 꾸려서 여행이나 중심가에 놀러가기도 합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고 싶으면 일본인 친구를,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권, 유럽친구들을 사귀면 좋습니다. 솔직히 공부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환학생은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생활은 너무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금오공대밖에 없는 좁은 시야에서 일본 수도대학동경의 글로벌하우스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넓은 시야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현재 자기가 있는 그곳 뿐 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여러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과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일본 취업에 대한 꿈도 생겼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